



올바른 안경은 맞추는 법

연재
7회

李 相 旭

요사이도 안경은 잘만 보이면 되고 돋보기는 크게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관심으로 안경을 골라 썼다. 1883년에『알렉산더』는 「시력의 성질에 대해서」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떤 안경이 잘맞는지 사용자가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안경을 축 늘어 놓으면 손님은 보통

글씨가 크게 보이는 것에 끌려서 자칫하면 도수가 너무 센것을 고르게 된다. 안경이라는 것은 보이는 같은 거리에서 눈을 약하게 하지않고 편하게 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당시는 안경상에게 어느 안경이 나에게 제일 맞는 도수냐고 물어보아도 별 도움은 안되고 심지어는 인편에 안경을 사는 경우도 많았고 행상인으로부터 사기도했다. 이와같은 방법은 1900년초까지 지속되어 중세기이래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초기의 안경이 주로 돋보기였던것이 차차 근시, 원시안경이 보급되어 왔으며 『벤자민·프랑크린』이 먼곳보는 안경과 돋보기가 합친 이중초점안경을 고안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까지 난시(亂視)라는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1827년이 되서야 처음으로 亂視를 교정하는 안경이『휴라아』라는 안경상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졌다.

색안경이 처음 등장한것은 1817년의 미국의 동판화(銅版畵)인데 이것을 보면 『티모시·드와이트』상(像)에서 그가 색안경을 쓰고 있고 20세기초에 불란서에서는 청과녹색의 색안경이 쓰여졌다. 처음 상당히 비판을

돋보기와 먼곳보는 안경합친 이중초점안경이 후랑크린 이 첫 발표

= 새
 = 안
 = =
 = =
 = 1
 = 8
 = 1
 = 7
 = 년
 = 미
 = 국
 = 서
 = 개
 = 발
 = 했
 = 으
 = 나
 = 유
 = 행
 = 은
 = 20
 = 세
 = 기
 = 초
 = 프
 = 랑
 = 스
 = 서

받았고 잘 안쓰려고 하던 안경이 차차 약세사리의 일부로 등장하게 된다.

1913년 가을 칸사스시의 『스타지(紙)』를 보면「이제는 약점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사람은 눈에 안경을 쓰고 번쩍거리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는것 같다. 의사는 마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이 큰 부영이의 눈같은 원형렌즈를 쓰라고 처방을 내렸다」라고 쓰여있다.

이제야 안경은 행상인이나 가게에서 재눈에 맞는것을 스스로 고르는 시대로 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는 시대로 된것이다.

즉 안경이란 잘 보기 위한 것인 동시에 귀중한 자기 눈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써야한다는 인식이 된것이다.

그후 광학이 발달됨에 따라 어떻게하면 편하고 눈에 맞는 자연스러운 도수의 안경을 맞출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허구많은 검사기계가 개발되었다. 옷을 하나 사입는데도 기성복이면 몸에 잘 맞지 않는데 하물며 귀중한 자기 눈을 보호하려면 정밀한 검사를 한후에 안경을 맞추어야된다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우기 원시나 난시가 있을경

우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눈의 피로와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안경을 써야만 한다. 또한 눈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맞는 정확한 안경을 맞추려면 눈의 구조, 생리를 비롯하여 광학적인 전문지식이 절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멋대로 안경을 맞추는것은 절대 삼가야하며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고 정확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안경점에서 안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안과의사도 안경을 맞추는 일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가지만 안과를 찾아오는 환자의 상당수가 안경때문에 온다는것을 생각할때 더욱 세밀하게 처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 가톨릭醫大 聖母病院
 眼科科長>

● 기생충 박멸표어
 어린이 건강은
 기생충 예방부터
 한국기생충박멸협회